韓電 原電사업 특감

감사원 이달중 적정성여부·不實시공 집중감사

감사원은 9일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이달중 착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특감실시 배경에 대해 「安秉華 前상공부장관의 원전사업관련 수뢰사실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원전건설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앞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원전건설사업 자재품질의 적정성여부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부당하도급 등에 대해 집중감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원전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거나 기준에 미달되는 자재로 시공되는 등 부실시공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설계대로 다시 시공토록 하고, 비위관련자를 문책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기술국소속 감사요원21명을 투입, 3주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의 객관성 및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자력 안전기술원, 건설기술연구원등 전문연구기관에 자문할 계획이다. 〈朱庸中기자〉

지역民放 오늘 발표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공보처회의실에서 지역민방허가위원회(위원장 吳隣煥 공보처장관)를 열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직할시의 지역민방사업자를 최종 확정·발표한다. 업계에 따르면 채점기준과 청문결과를 종합해볼 때 부산지역에서는 H-J사, 대구는 C-D사, 광주는 L-D사, 대전은 J-S-W사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매인 도매행위 허용

밭떼기·수탁판매는 금지

農安法 재개정案

정부는 지난5월 농수산물 유통마비 사태를 초래했던 農安法을 재개정, 그동안 도매시장 중매인에게 도매행위를 금지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도매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농수산물 중간마진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위해 산지 밭떼기와 수탁판매는 금지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유통개혁기획단(단장 李錫采 농림수산부차관)은 9일 이같은 「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안」을 마련, 당정협의 등을 거쳐 농안법을 재개정,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8면〉

대책안은 농수산물 유통마진을 줄이려면 품목별 생산자단체 중심의 규격출하가 필수적이라 보고, 오는 2004년까지 구조개선사업비 8조3천억원, 농특세사업비 1조4천억원 등 모두 9조7천억원을 들여 농산물 포장센터를 비롯한 산지유통시설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밭떼기 자체를 전면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산지 수집상에게 등록제를 실시, 밭떼기를 제도권으로 흡수, 양성화하고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모든 품목에 상장거래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承仁培기자〉

출국 出國 Depart

◇사하라에 PKO軍 파견 서부 사하라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할 국군의료지원단 선발대 17명이 9일 오전 김포공항에서 환송객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金振平기자〉

납북인사 송환 총력 촉구

국회外統委 결의

국회외무통일위(위원장 羅雄培)는 9일 납북억류인사송환과 북한내 인권개선과 관련,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밝혀진 高相文씨등 납북인사들이 당장 송환돼 가족과 재상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외무통일위는 이날 여·야합의로 이같은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高씨를 비롯한 납북인사의 생사확인과 원상회복을 위한 송환을 성사시키라」고 촉구했다.

외무통일위원들은 또 「북한당국은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해야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사면위원회등 인권관련기관의 실태조사를 허용하고, 이산가족과 억류자송환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해 그동안 남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채택한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李鍾遠기자〉

양도세율 대폭 인하

「新경제」회의 40~60%서 30~50%로

정부는 연내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등 14개 세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40~60%를 30~50%로 인하하고 종합소득세 최고세율도 현재의 45%에서 40%로 낮출 전망이다. 또 토초세율도 현재 50% 단일세율에서 30~50%로 누진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또 빠르면 96년부터 예금자보험제도가 도입돼 은행사고나 부도시 고객들이 예금의 일정액을 되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金泳三대통령 주재로 제12회 신경제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재무부 姜萬洙세제실장은 이날 올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인적공제한도와 근로소득공제한도를 각각 인상, 근로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姜孝祥기자〉

李부총리 국회외통위 답변

「가까운 시일내 새 통일정책 발표」

金正日 권력승계 순조롭게 진행

남북정상회담 先제의 검토 안해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은 9일 정부의 새 통일정책과 관련, 「가까운 시일내에 자주 평화 민주 등 통일에 대한 기본철학을 재정립,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李부총리는 이날 국회 외무통일위에 출석, 「현정부의 對北정책 혼선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민자당 盧在鳳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하고 「우리 사회가 통일을 지향하면서 포기할 수 없는 기본가치와 규범및 원칙을 명확히 규정한 범국민적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작성, 정기국회 기간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부총리는 또 北韓내부 동향과 관련, 「金正日이 여러가지 장기적인 건강상의 문제는 있으나 특별히 위험한 상태는 아니며 가족관계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권력승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게 정설」이라고 말했다.

앞서 李부총리는 인사말에서 『金正日로의 권력승계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배분과 조직 재정비, 권력구조 변동에 따른 인사개편 등의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공식적인 승계절차가 마무리되고 金正日의 권력기반이 확고하게 안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金正日을 중심으로 하되 실제로는 「黨的 지배체제」를 강화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했다.

李부총리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北韓이 연기를 요청했던 만큼 북한이 연기를 해제시키는데 필요한 내부절차를 완료하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先제의는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회의에서 與野의원들은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부재를 지적하고, 납북자 송환과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李鍾遠·許容範기자〉

UR비준 정기국회서 처리

民自 8월 처리 철회…對野협상 착수

민자당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국회비준안 처리문제가 黨에 위임됨에 따라 비준안의 8월처리 방침을 철회, 年內처리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12월18일까지의 정기국회 기간중, UR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것으로, 미국·일본 등의 처리과정과 야당의 반응 등을 보아가며 최종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자당내에서는 처리시기와 관련, 미국의 처리가 예상되는 10월 또는 12월초 예산안 처리와 동시에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民培기자〉

北 흑연감속 원자로 러, 輕水爐교체 검토

【모스크바=黔】 러시아 원자력에너지부 핵전문가들은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를 경수로로 교체하는 문제를 검토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러시아 원자력에너지부 핵전문가들이 北·러시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협정」에 따라 군사용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흑연감속 원자로를 경수로로 교체하는 문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人事

◆외무부 ▲조약국장 吳潤卿 ▲문화협력국장 金永基 ▲감사관 崔京甫

◆충남일보 ▲이사 논설주간 朴鍾薰 ▲관리국장 崔命琪

◆한국외국어대 〈부처장〉 ▲서울캠퍼스학생 金世永 ▲용인캠퍼스총무 李康五

◆동국대 〈학장〉 ▲불교대 權奇悰 ▲의과대 李聖雨 〈병원장〉 ▲경주 徐廷旭 ▲포항 金經喆 〈보건소장〉 ▲서울 金璋顯 ▲경주 李永鉉 〈전자계산소장〉 ▲서울 李金石 ▲경주 李太庚 〈동대신문사〉 ▲편집인겸주간 沈翊燮 〈실장〉 ▲체육 趙泳奭 〈대학부장〉 ▲학원 洪升基 ▲국제 李元傅 〈대학부장〉 ▲[illegible] 金益基 ▲[illegible] 申宰浩 〈[illegible]부처장〉 ▲경주 黃玉子 〈연구소장〉 ▲경영관리 趙熙榮 ▲농림과학 趙炳寶 ▲해외개발 錢昌源 ▲지역발전 李秉東 ▲공안행정 李璜雨 ▲자연과학 成墉吉 ▲한국문학 洪起三 ▲사회조사 孫[illegible] ▲교육문제 鄭鎭環 ▲지역환경 吳洪哲 ▲유럽문화 白奉欽 ▲회계 尹鍾安 ▲경제문제 金仁濟 ▲생명과학 尹柱億 ▲일본학 申容泰 ▲신라문화 金甲周 ▲사찰조경 崔相範 ▲한의학 金吉萱 ▲영남지역발전 朴準鶴

◆미래유스텔레비전 ▲제작본부주간서리 田麗玉 ▲제작소관리부장 白明守

北학자, 정치범수용소 전혀 몰라

연변 「컴퓨터 학술회의」 안팎

高相文씨 납북감금 듣고 답변안해

우리측 PC3대 전달에 北측 거절

【延吉=金明煥기자】 6일부터 8일까지 중국 연길시 연변호텔에서 열린 「94 코리안 컴퓨터처리 국제학술회의」는 김일성사망이후 북한의 엘리트층이 가장 대규모로 남한측 인사들과 공식적으로 접촉한 자리였다. 학술행사이니만큼 이번 모임에서는 가급적 정치적 문제를 화제로 삼지 않는 분위기였으나, 비공식석상에서 기자는 북한측 젊은학자들과 얼마간의 대화를 나눴다(자연스런 대화를 위해 기자는 굳이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다).

○…30대중반의 북한컴퓨터 연구원은 정치적 화제를 삼가고 있던 기자에게 대뜸 김일성사망이후의 북한 분위기에 관해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김일성 수령님 서거하셨다는 소식을 남조선에서도 바로 알았갔지요?』라고 말을 꺼낸 후 『우리는 정말 섭섭했시요. 그게 뭡니까. 남조선 정부가 조화한다발만 보내줬어도 달랐을 겁니다. 정상회담을 하겠다던 남조선정부가, 회담 상대였던 수령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조문을 안했다는데 대해 모두 분개하고 『통일하려면 싸우는 수밖에 없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는 『남조선 대학생들이 분향소를 세웠다는 소식과 함께 이를 경찰들이 짓뭉갰다는 소식을 듣고는 많은 북한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북한 젊은학자들은 또 약속이나 한듯 『클린턴도 조의를 표했는데…』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싸운 사람이 아니라 당신 어머니 아버지를 죽인 책임자라면 당신은 그래도 머리숙여 조문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자 대부분 『그만합시다』라고 화제를 돌렸다.

○…20대후반의 한 북한학자는 박보희씨의 조문사실을 알고있냐고 묻자 『아 물론이지요』라고 말해 박씨의 조문이 북한내에 크게 보도됐음을 시사. 그는 『그분이 신문사 사장이라지요?』라고 묻고는 『그 신문사가 폐간됐습니까』라고 물어 잠시 기자를 어리둥절하게 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이전에 대우그룹 회장도 조선에 다녀갔다』며 『대우하고 삼성하고 어느 기업이 더 크나』고 한국기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대회에 참석한 북한인사들은 앰네스티가 발표한 북한의 정치범 실태와 수도여고교사 고상문씨의 수용소감금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30세의 북한학자는 『고상문교사가 납북돼 억울하게 감금된 사실을 아느냐』고 하자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하하…』 웃다가 다시 『정치범을 수용하는 평양교외 승호마을에 관해 아느냐…』고 하자 『승호마을?』이라며 또 웃었다. 그는 기자가 『권위있는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가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서방기자들중에 좀 질이 나쁜 기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거지가 없는 평양시내에서 누추한 노인사진을 찍어 있지도 않은 거지가 많다고 보도 합니다』라고 동문서답.

○…40대 초반의 북한인사에게 한 남한 인사가 조심스럽게 김정일체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으나 그들은 뻔한 이야기외엔 하지 않았다. 『김정일 비서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권력을 승계했는지, 주석직에 취임했는지 선포되지 않고 있는데…』라고 하자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온 인민이 모두 김정일 비서를 믿고 따르면 됐지요』라고 응답.

○…북한인사들은 또 『남측이 조문조차 오지않는 그런 자세로 과연 통일이 되겠는냐. 95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라는 말을 많이 했다. 1995년은 생전의 김일성이 『통일은 조국해방 50년이 되는 1995년까지 꼭 이룩해야 한다』고 했던 교시의 시한이라는 것.

○…북한의 30대 젊은 학자들은 이번 행사중 남북한 참석자들의 쓰는 말에 서로 알아듣기 힘들정도로 이질화된 부분이 많은 점에 대해 정말로 걱정하는 눈치. 이들중 한명은 「북경행 출발」이라고 쓰인 대회 팸플릿을 기자에게 보이며 「북경이란 게 어딥니까」라고 물어 「베이징」이라고 하자 그제야 알아들었다. 또 「판소리」 공연때는 「판소리」라는 말의 뜻을 대부분의 북한 젊은 학자들이 몰랐으며 『이 노래는 좋은 줄 모르겠습네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 말도 안통하는군요…』라고 서운해하다 『지금부터 10년이 지나 남북간에 분단전 세대들이 다 세상을 떠나면 정말 남남이 되는 게 아닐까 걱정』이라고 했다.

○…한국대표단은 당초 한국산 486 개인용 컴퓨터 3대를 북한측에 전달하려고 했으나 북한측이 『우리는 93년에 김일성수령님께서 주신 1천만달러로 개인용컴퓨터를 다량 구입해 놔 필요가 없다』며 거절해 할 수 없이 연변 조선족 학술단체에 기증했다.

記者수첩

「이눈치 저눈치」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연합등 65개 재야단체가 주최하는 범민족대회를 앞두고 각대학이 정치성 학내집회의 불허 방침을 잇따라 천명하고 있다. 지난 1일 서강대와 건국대·경기대가 이같은 방침을 확인한데 이어 2일 경원대 아주대, 4일 고려대 서울시립대, 8일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9일 성균관대가 뒤를 따랐다.

범민족대회 개최시기가 다가오면서 개최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대학들의 이같은 의지 표명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10일로 예정된 서울지역 16개대 학생처장들의 모임에서 범민족대회 대책수립을 요청할 계획이어서 더욱 그렇다.

때늦은 느낌마저 있으나 일단 대학들이 정치성 집회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지금껏 학생운동권의 좌익세력이 「암세포」처럼 번져온데 대한 가장 큰 책임이 대학당국과 교수들의 「무관심」에 있었기에 각대학의 이같은 자세 변화는 일단 환영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런 의지 표명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부대학의 경우 과연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한지 의심이 간다. 불허 입장과 함께 「법적인 조치」 「공권력 투입요청」 등 구체적인 「제재 의지」를 밝힌 대학은 연세대 서강대 건국대 한양대 뿐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대학과 교수들이 그간 운동권 학생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왔던 양태에 비추어 볼 때, 대학들의 이번 정치성 집회 불허의지가 실천력을 가지려면 불허 방침 천명과 더불어 집회 강행에 대비한 학교측의 대응방안도 함께 발표됐어야 마땅하다는 지적들이다.

최근 고려대가 보인 「눈치 처신」이 그 대표적인 사유로 꼽히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권력 투입 요청 의지를 밝힌 30분 뒤 『없던 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가, 또다시 30분 뒤 『요청할수도 있다』고 번복하는 뼈대 없는 처신으로 주위의 눈총과 비난을 샀었다. 대학들의 불허 방침 천명시기가 7월하순 교육부장관 공한, 8월1일 교육부 공문을 보낸 이후에 집중됐다는 점도 진정한 대학의 의지인지 의심이 가게하는 대목이다.

「교육부 요청」이라는 보호막뒤에 숨어 마지 못해 불허 결정을 내린 건 아닌가하는 의혹에 떳떳한 항변을 할 수 있는 대학이 얼마나 될까. 대학과 교수들이 「한치 앞의 계산」에 머리를 돌리기 보다는 국가사회의 먼 장래를 위해 보다 분명하고 흔들림없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소망이요, 기대다.

〈崔秉默·사회부기자〉

Marine Sales Manager

Alfa Laval, leading supplier of equipment to shipowners and shipbuilders seek Sales Manager to head our Marine Business Unit in Seoul, in view of further localisation of our business in Korea.
The position reports to our Business Area Director.

You should be interested to work in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have the capacity to lead the Marine department to service excellence to the market and our customers.
You should also be prepared to withstand a high pace during positive climate in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In return you will get a position that will offer you a high degree of independence with the opportunity to prove your capabilities in a dynamic environment where social interaction with customers and colleagues will give you both variety and satisfaction. Great possibilities for overseas experience is offered.
You will manage people and get the opportunity to delegate often and frequently within the organisation.

We believe you have a university degree, and have more than 10 years working experience within shipsales or shipbuilding industry.

For further details and information please contact our Vice President at telephone No. 02 749 22 91-5 or send your application directly to:

Alfa Laval Korea Ltd.
C.P.O. Box 4285
Seoul 100-642

Please mark the envelope "Marine Sales"

Alfa Laval
49-3, Hannam-dong, Yongsan-ku, Seoul
Tel. 02 7492291-5, Fax 02 790 83 84-5

연구위원을 초빙합니다

세계일류 종합금융그룹을 지향하는 「제일은행」이 국제수준급의 연구소를 목표로 설립한 「제일종합금융연구소」에서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국금융산업 발전의 Think-Tank 역할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문연구인력을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응모자격

모집부문	자격	인원	비고
금융경제 경영컨설팅 마케팅조사 정보시스템 국제업무	석·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서 상당기간 연구경력을 쌓으신 분 (특히, 국제금융기관, 해외유수 은행, 증권사, 회계법인 및 컨설팅사 근무경력 있으신 분 우대함)	○○명	경영전략, 증권분석, 기업분석, 국제금융, 해외지역연구 포함
Editor (영어,일어)	대학이상 졸업으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는 분	○명	

2. 대우

학력 및 연구경력에 상응하는 최고수준의 연봉 및 주택자금 지원

3. 선발방법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담 (대상자는 서류심사후 개별통보함)
*해외에서 응모하신 분에 대하여는 현지 Interview 실시 예정

4. 제출서류

가. 국·영문이력서 각 1통
나. 국·영문자기소개서 (A4 용지 2~3매 이내) 각 1통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활동, 연구내용 등을 기재)
*Editor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국문 및 해당 외국어로 작성

5. 접수방법

가. 우편접수
나. 기 간: 1994년 8월 11일(목)~8월 31일(수)
다. 보내실곳: 당 연구소 또는 제일은행 해외지점 (아래)
(국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00, 제일은행 본점내, 제일종합금융연구소 (우)110-702
(해외) 제일은행 New York, Chicago, Los Angeles, London, Tokyo지점

※ 참고
가. 채용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인비 (confidential)로 취급되며, 최종 선발자를 제외한 응모자의 제출서류는 전형절차가 끝난 후 본인 앞 우편반환해 드립니다.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당 연구소 (☎733-0070 (교) 4308, 4319) 또는 제일은행 해외지점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94년 8월 9일

제일은행 그룹이 설립한
(주)제일종합금융연구소

GTV

경·력·사·원·모·집

그린텔레비전은 새로운 여성문화의 창조를 통해
가정과 사회의 행복을 추구하는 진로그룹의 여성프로그램
전문 케이블채널입니다.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부문	인원	직종	응시자격
편성	○명	•기획 •홍보 •자료관리 •편성제작 •편성운행	1. 해당부문 경력 2년 이상인 분 (단, 기획, 편성운행, 마케팅은 1년 미만 경력자도 가능함) 2. 방송사, 신문사, 광고회사 경력자 우대 3. 마케팅 부문은 광고회사 AE, 매체, SP 등 우대 4.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분 5.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6. 만 35세 미만인 분
마케팅	○명	•프로그램 마케팅	
제작	○명	•연출 및 조연출 •카메라 •무대미술	
기술	○명	•시스템(설계, 유지, 보수) •음향•영상(스위처, 편집)	
관리	○명	•제작관리	

2. 전형절차
- 1차 : 서류 전형
- 2차 : 면접
- 3차 : 신체검사

3.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 (당사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 (경력사항 중심, A4 용지 2매 이내)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기간 : 1994년 8월 11일(목)~20일(토)
- 시간 : 평일 10:00~18:00, 토요일 10:00~14:00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시 중구 정동 22번지 경향신문사 3층 그린텔레비전

6. 기타
- 국가 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기타 문의: 그린텔레비전 관리국(730-5411)

眞露그룹
(주)새그린
서울시 중구 정동 22번지 경향신문사 3층

GTV 그린텔레비전